

코스모, Rutile형 TiO₂ 생산 채비

온산, Rutile형과 섬유용 집중 개발 ... 인천공장은 Anatase형 다양화

2003년 6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후 제2의 창업을 선포한 코스모화학이 2005년부터 온산공장에서 Rutile형 TiO₂(Titanium Dioxide)를 생산하기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

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다른 용도의 Anatase형 TiO₂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섬유용 TiO₂ 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단섬유용 TiO₂ 외에 장섬유용 TiO₂ 신제품을 곧 출시하는 등 총 5종의 신제품을 8월부터 2005년 사이에 출시할 계획이다.

Rutile형 TiO₂는 현재까지 국내 생산기업이 없어 DuPont과 Millennium, Huntsman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섬유용 TiO₂도 수요처가 원하는 Spec을 맞추기 힘들어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.

코스모화학은 온산공장에 국내 유일의 Rutile형 TiO₂ 생산설비가 완공되면 약 1억5000만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또 국내 최초로 TiO₂를 생산했던 인천공장에서는 페인트, 고무, 제지, 플라스틱, 섬유 등에 사용되는 기존의 Anatase형 TiO₂를 소량다품종 생산방식으로 그레이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.

특히, Anatase형 TiO₂를 알루미늄 코팅으로 빛과 열에 강하게 해 Road Marking이나 내열 플라스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2종의 신제품 개발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국내공급은 물론 중국, 유럽, 미국 시장에 수출 할 예정이다.

한편, 코스모화학은 2010년까지 매출 2500억원, 영업이익 350억원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.

이를 위해 현재 60%대인 부채비율을 대폭 낮춰 무차입 경영으로 전환하고 2004년부터 시작한 <코스모30> 운동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.

<코스모30>은 도전, 창의, 자율의 정신을 기본으로 사업장별로 유틸리티 혁신팀을 구성하고 제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, SIT(Skill Innovation Team)를 구성해 창의적인 경영혁신을 위한 자체활동이다. <심주영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8/13>